

# 지역 골재가격 1년새 38% 급등... 건설현장 수급난

올 상반기 3차례 인상 '골재 대란' 환경 규제로 모래 채취량 감소세 레미콘업체들 원가 부담 등 이중 "행정규제 개선·관련 조례 제정"을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필수적인 잔골재(모래) 가격이 1년새 38%나 급등하면서 '골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통상 건설 수요가 늘어나는 장마철 이후 건설 성수기를 앞두고 레미콘 업체에서는 골재수급에 열을 올리지만, 광주·전남 지역내 모래 채취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전북 등 인근 지역에서 골재를 수급하고 추가로 운반비를 지불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 레미콘 업체는 지역내 잔골재 채취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대책

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역내 주요 골재 채취 구역 중 한 곳인 함평군의 채취량이 자연훼손, 민원 등의 사유로 지난해 80만㎥에서 올해 40만㎥로 감소했다. 모래 가격도 급등했는데, 함평 지역 모래(운반비 포함) 가격은 7월 기준 ㎥당 2만2500원으로 지난 2020년(1만5800원) 이후 4년 사이 42.41% 치솟았다. 1년 전(1만6300원)과 비교해 38.04% 급등했다.

이는 올 상반기에만 모래 가격이 3차례 이상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1만9500원으로 전년보다 19.6% 올랐으며 △3월 2만500원 △7월 2만2500원 등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레미콘 업체는 지난해 육상골재 채취량이 감소하면서 원거리 타지역(남

원, 고창, 순창) 등에서 모래를 공급받고 있어 관내(나주, 화순, 곡성, 영광, 함평) 모래 수급량을 곧 뛰어넘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모래 산지 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타 지역에서 수급해 오는 모래량은 전체 수급량 중 49.4%인 140만㎥를 기록했다.

부족한 골재를 추가로 운반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타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역시 모래 채취량이 턱없이 부족해 물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레미콘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타 지역 중 가장 많은 모래 수급량을 보이는 남원지역 가격도 7월 기준 ㎥당 2만9000원으로 지난 1월(2만8000원) 대비 3.6% 오르는 등 골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

고 있다.

골재는 하천, 바다, 산림, 지하·지상에 부존된 암석 등에서 채취·생산하는 모래 또는 자갈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인다. 하지만 골재채취 과정에서 환경 파괴,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많아 정부 인허가를 통해서만 채취가 가능하다.

정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한해 건설투자를 예측, 골재 채취 목표치를 설정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치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일이 많다. 때문에 골재채취업자가 골재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가격만 계속 올리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도 모래 수급 차질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를 방문해 골재 채취 인허가 관련 수급 현황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골재수급계획은 국토교통부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해 수립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담당부서도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골재 공급이 줄어들면서 골재난을 겪고 있어 앞으로 건설대란이 발생, 지하철 2호선 등 관급 건설공사가 울스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되는 건설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골재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골재수급대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 광주경총, 청년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남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취업시장 참여와 교육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취업 연계까지 제공해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취업시장 참여 지원 및 정부 사업 연계 활성화, 취업 전 일경험 제공과 더불어 종합적인 진로상담과 청년 눈높이에 맞는 기업 발굴 등이다.

이를 위해 전남대학교 일자리센터는 △일경험프로그램 홍보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광주경총은 회원사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기업 인턴십,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심층 상담을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의 대학 졸업자의 50%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타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청년들이 지역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전남신보, 하나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 확대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지난 2월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원 출연에 이어 추가로 5억원을 출연받아 '하나 THE 중저신용 협약보증'을 1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2월 75억원 규모로 시행한 '하나은행 특별출연 하나 THE 중저신용 협약보증'을 2배 확대해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전남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경우 전남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이라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남신보에서 전액 보증한다.

또 전남도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연계할 경우 3.0~3.5% 이자지원으로 고객은 1.8~2.6%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에선 성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최근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에선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소재 대학생 중예심을 통과한 6개팀이 참가했으며,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 과정,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이해도 등과 관련된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개 팀간의 열띤 경합 결과, 최우수상은 전북대학교 '금디락스팀', 우수상은 순천대학교 '경제BOK지부팀', 장려상은 전남대학교 '회BOK탄력성팀'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 수여됐으며, 최우수상 수상팀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결선대회(8월13일 예정)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됐다.

한편,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서류전형 우대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권범 기자

제 1129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5 10 11 17 28 34	2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3억6956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060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38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은행은 최근 고병일 은행장과 임현철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신입행원 34명 첫발... "80% 이상 지역 출신"

광주은행은 최근 고병일 은행장과 임현철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의 직무연수와 6개월의 수습근무를 마친 34명의 신입행원들은 사령장을 받고 정식 행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신입행원들은 창구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했으며, 현장에서 금융환경을 몸소 체험하며 은행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힘을 쏟았다.

고병일 은행장은 진정한 은행원으로서

답이기 위한 긴 여정에 성실히 임한 신입행원들을 격려하며 한명 한명에게 휘장을 달아줬다. 더불어 "지역민과 고객에게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프로 은행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권범 기자

## 'K-푸드 열풍' 상반기 전남 수출 호조...광주는 부진

무협 광주전남본부 수출입동향 광주 5.0% 감소...전남 8.0% 증가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동향' 결과, 올해 1월~6월 상반기 광주·전남 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326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수출은 8.0% 증가한 24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광주지역은 5.0% 감소한 8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석유제품 등 기존 주력 수출품도 호조세를 보였지만 'K-푸드' 열풍으로 농림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광주의 수출 감소는 전방 수요 회복 지연으로 반도체 수출이 연중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광주·전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2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생산·투자 부진으로 중간재·자본재 수입은 감소했으나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무역수지는 79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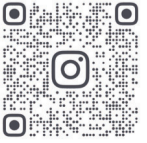
전남의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억7000만 달러 증가했으나, 광주는 2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박소영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